

# 개소세 종료 등 악조건에 내수시장 쾅쾅... 지엠만 '약진'

## 완성차업계 1월 실적

내수 9.9만대 판매, 전월비 31% ↓  
한국지엠만 빼고 일제히 하락세  
르노삼성, 56.88% 큰폭으로 줄어  
현대·기아차 외엔 수출성적 저조

1월 자동차 시장이 한파를 맞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와 함께 공장 가동 문제 등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5개사는 1월 한달간 내수 시장에서 9만960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11만7464대)보다는 15.21%, 전월보다는 무려 31.23% 급락한 수치다.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주는 조치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자동차 수요도 크게 줄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별로는 한국지엠만이 5101대로 전년(5053대)보다 0.95% 성장했을뿐, 쌍용차(-36.76%)와 현대차(-21.26%),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버스-콜로라도.

르노삼성차(-16.83%) 등 나머지 브랜드 모두 급격한 하락세에 빠졌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르노삼성은 무려 56.88%나 크게 하락했다. 쌍용차(-47.45%)와 한국지엠(-42.17%) 등 3사 모두 큰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나 현대차(-28.26%)와 기아차(-24.59%)가 선방한 편이었다.

수출길도 막혔다. 현대자동차가 25

만6485대, 기아차가 17만8062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6%, 3.61%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르노삼성이 1930대 수출에 머무르며 전년 동기대비 77.34%나 수출량이 줄었고, 한국지엠도 1만5383대로 -54.29%를 기록했다. 쌍용차도 2096대 수출에 그치며 전년 동기대비 -20.39%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그나마 최근 출시한 신차들이 시장 축소를 최대한 막아냈다. 현대자동차 베뉴(1710대)와 기아차 셀토스(3508대), 쉐보레 콜로라도(777대)와 트레버스(257대)가 대표적이다.

신형이나 페이스리프트로 업그레이드된 모델 인기도 여전했다. 현대차 쏘나타가 6423대로 전년(4541대)보다 41.44%나 판매량을 키웠고, 기아차 K5와 K7도 각각 전년보다 144.8%, 31.3%나 크게 성장했다. 모하비도 1428대 판매로 전년비 262.5%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은 앞으로 실적을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차 출시를 가속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엠은 부평 공장에서 양산하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공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판매를 본격화하면 과거 실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공장이 트레일 블레이저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최대 수출

모델인 트랙스 '신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르노삼정도 조만간 XM3와 캡처, SM6 페이스리프트 등 다양한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XM3는 르노그룹 내에서도 르노삼성이 개발을 주도한 모델로 알려졌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르노그룹이 부산 공장에 생산을 맡길지가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쌍용차다. 지난해까지 신차를 잇따라 내놓은 탓에 공백기를 맞은 데다, 기대보다 저조한 수출 실적으로 자금난까지 겪게 됐다.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쉽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직 문제로 노사 갈등도 다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 축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지만, 노조 등 일부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이노, 2.7조 규모 양극재 대량 확보

(배터리 필수 소재)

에코프로비엠과 공급 계약 맞춘  
연간 2만6000톤 생산능력 기대

SK이노베이션이 중장기 공급 계약으로 배터리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대량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비엠과 하이니켈계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총 계약 규모는 2조7406억원이다.

충북 청주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던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르면 1분기 중 포항에 SK이노베이션 전용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양극재 공장이 3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연간 생산 능력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셀.

/SK이노베이션

2만6000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사는 이같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후방 업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헝가리 코마름과 중국 장저우에 각각 연산 7.5G

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완성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로부터 연이어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결과로 후방 소재 업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LG 클로이 서버봇' 제일제면소서 서빙 척척

빈 접시 회수하고 장애물 회피도

LG전자 로봇이 제일제면소에서 근무한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제일제면소 서울역사점에 LG 클로이 서버봇 1대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클로이 서버봇은 CES 2020에서 처음 선보인 제품이다. 실내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탑재해 음식을 고객에게 있는 테이블까지 전달해주는 임무를 맡는다. 트레이 3개를 끼우면 최대 4칸에 음식 여러개를 담을 수 있으며, 식사를 마친 고객 테이블에서 빈 접시를 회수할 수 있다.

특히 클로이 서버봇은 뜨겁거나 무거운 그릇도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 때문에 LG전자와 CJ푸드빌은 직원들이 고객을 더 세심하게 응대하는 등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클로이 서버봇은 고객을 소중히하는 능력도 있다. 화면에 다양한 얼굴 표정을 띄워 고객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고객을 따뜻하게 맞으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가도 될까요?'라며 피해가기도 한다. 노래를 재생해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도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1월 빙스 등 촌점에 클로이 세프봇을 도입해 주방 업무 일부를 로봇에 위임한 바 있다. 이번



LG전자 클로이 서버봇.

/LG전자

에는 서빙에도 로봇을 도입하며,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 美 최대 공조 전시회서 '혁신 솔루션' 선보

삼성전자 'AHR엑스포' 참가  
무풍에어컨 폴 라인 등 전시

삼성전자가 3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개최되는 'AHR엑스포'에서 혁신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AHR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 학회(ASHRAE)가 주최하는 90년 전통의 북미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벽걸이형, 1Way·4Way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 등 무풍에어컨 폴 라인업 등 다양한 공조 솔루션을 전시한다.

특히 북미 에어컨 시장 공략을 위한 신규 벽걸이형 무풍에어컨과 콘솔형 에어컨 등 실내기 라인업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은 팬 크기를 약 15% 확대해 냉방 성능을 끌어올렸고, '와이드 무풍 냉방'은 무풍 패넬을 11% 확장해 간접풍으로도 균일하고 쾌적한 냉기를 선사한다. 블레이드도 31% 넓어져 바람을 최대 15m까지 보내

주며 냉방 속도를 높였다.

신제품에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실내의 온도 등의 중요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운전 모드로 자동 전환해주는 인공지능(AI) 냉방 기능도 적용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콘솔형 에어컨은 벽면에 설치가 가능한 실내기로, 냉·난방 겸용 제품이다. 실내기 폭이 199mm에 불과하며, 바람을 상단과 하단 2개 방향으로 내보내 효율을 높였다. 따뜻한 바람은 하단으로 흘러나와 바닥도 따뜻하게 해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대 5대의 실내기가 연결 가능한 다배관 형태의 14kW FJM 실외기 ▲영하 15℃의 극한에서도 난방 성능을 100% 구현하는 '맥스 히트' 시리즈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치 편의성을 높인 'DVM S Eco' 실외기 시리즈 등 혁신 공조 솔루션도 함께 전시한다. 또 냉장고나 TV를 통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홈 IoT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했다. /김재용 기자

## 대한항공, 인천지역 초등생에 장학금 전달

대한항공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직원들이 인천시 중구 소재 용유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범 졸업생 3명에게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대

한항공은 2009년부터 인천 용유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인 '하늘사랑 영어교실'을 운영해왔다.

이날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직원들은 "용유초등학교 졸업생을 위해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